

# 화학소재로 외국인 투자를 잡아라!

## 산자부, 2003년 국내 직접투자 4년 연속 감소 ... LCD · 반도체에 기대

2003년 국내 외국인 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64억6700만달러를 기록하며 200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.

그러나 도착기준 외국인 투자는 동우STI의 Sumitomo화학 투자유치와 삼성Atofina의 Total Holding과의 합작 등을 포함해 2003년 3/4분기까지 23억76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9.8% 증가했다.

산업자원부가 발표한 <2003년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>에 따르면, 2003년 외국인 투자액은 2002년보다 28.9% 줄어든 64억67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.

외국인 투자실적은 1999년 155억4200만달러로 75.6%의 증가율을 기록한 뒤 2000년 152억1700만달러(-2.1%), 2001년 112억9200만달러(-25.8%), 2002년 91억100만달러(-19.4%)에 이은 4년 연속 감소세이다. 전세계적인 경기침체, 미국-이라크 전쟁 등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북핵위기, 노사갈등, 내수침체 등 대내적인 불안 요인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그러나 2003년의 실적은 산자부가 목표했던 6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며, 분기별로는 1/4분기 -48%, 2/4분기 -41%, 3/4분기 -20%, 4/4분기 -1%로 감소폭이 둔화돼 2004년 전망을 밝게 했다.

투자에 참여한 외국인으로는 EU가 84.1% 증가한 30억610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(12억4000만달러)을 제치고 투자 1위에 오른 반면, 미국은 72.4% 감소했으며 일본도 5억4100만달러로 61.5% 줄었다.

EU 지역 투자에는 6월 삼성종합화학과의 합작투자, 12월 BP의 SK전력 지분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.

제조업 가운데 부품·소재 분야는 자동차, 반도체, LCD 등 주력 산업의 호조로 2002년 12억1000만달러에서 2003년 12억8600만달러로 증가해 투자비중이 19.9%로 6.3%p 높아졌다.

헤리슨도시바와 JSR은 국내 LCD 부품산업에 신규 투자했으며,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동우STI는 일본 Sumitomo Chemical로부터 자금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고, 합금 소재인 리퀴드메탈에 대한 투자도 활발했기 때문이다.

투자규모는 1억달러 이상 대형 투자가 46.9% 줄어든 반면, 1000만-1억달러 투자는 10.2% 늘었고 투자유형은 공장 설립형(Greenfield) 68.7%, M&A 31.3%로 나타났다.

도착기준 투자는 3/4분기 8억6400만달러로 전년보다 10.9% 증가해 2002년 4/4분기 이후 처음으로 신장세를 나타냈다.

이에 따라 1-9월 투자액은 23억7600만달러로 전년대비 19.8% 증가했으며 외환은행, 하나로통신, SK전력 등 대형 프로젝트 투자가 4/4분기에 집중돼 한해 투자액은 2002년 36억7900만달러보다 40% 가량 증가한 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.

산자부는 2004년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투자확대,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활용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통해 8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1/08>